

기 조 논 문

- 안경승(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일의 의미와 진로결정



일의 의미와 진로결정

안 경 승*

국문초록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일의 의미, 일과 소명과의 관계, 일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은 진로상담의 현장에 자원이 된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이러한 관점을 이해하고,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축복이자 힘든 노동인 일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소명은 조금 더 폭 넓은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찾아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일은 인간의 자기실현만이 아니고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꾼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도록 돕는다. 진로상담의 실제적 접근 방법인 진로선택과 진로발달에 관련된 이론과 기술이 소개된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학자들의 몇 가지 제안을 분별한다. 직업과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것은 긴 여정과 같다. 허락하신 이성과 상식, 조연과 기도로 분별해 나가는 계획된 진로결정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중심단어 : 진로상담, 일의 의미, 소명, 결정전략, 진로결정

I. 여는 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10%에 육박하는 실업률로 인해서 어려

• 논문 투고일: 2009년 09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09년 11월 12일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09년 10월 24일

움을 겪고 있다.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의 고민만이 아니고, 일할 곳이 없다는 현실에 처하고 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청년실업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졌다. 일은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이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창 일할 시기에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된다.

학교나 일선 상담현장은 지속적으로 진로와 직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왔고, 어려움에 봉착한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해 왔다. 기독교상담 역시 이 문제를 간과하지 못한다. 삶이 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에 일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이 독특하게 기여할 수 있다. 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하는 것으로 채워진다. 그러기에 일이 가진 위치와 의미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모든 내담자는 일의 의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각 내담자의 이러한 개인적 관점 또는 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직업 상담에 있어서 토대가 된다. 상담을 하는 동안 이러한 관점은 내담자가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에 따른 진로 및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과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상담자가 기독교적 관점에 기초해서 일의 가치를 알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상담적 자원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과 관련된 기독교의 관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일의 선택과 진로를 결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혜를 분별하고자 한다. 일의 선택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우리는 수 많은 선택을 하며 지내지만, 직업의 선택은 특별히 생애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선택이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도록 내담자를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 될 것이다.

II. 펴는 글

1. 일의 세계

사회가 변화하면서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졌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과 기피하는 직업도 생겨났다. 이전처럼 부모가 경영해온 직업을 계승하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것이라는 가치관도 영향을 끼쳤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정보와 이에 따른 막연한 기대 역시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되는 정보가 많은 만큼 망설임도 많다. 또한 자신의 일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많아졌지만, 직업 선택의 기준이 모호하다. 동경은 하지만 그 일의 실정과 과정에 대한 지식은 부재하다.

우리가 직업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떠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이 그 직업을 선택한 경우 어떠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지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무시할 수 없다. 반면에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자신의 목적이나 동기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어떤 일과 더 나아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며 접근해야 한다.

1) 일의 의미

첫째, 일에 대해서 ‘노동(勞働)’이라는 말을 쓰고 있듯이, 일은 ‘괴로운 움직임’이라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축복도 소명도 아니고 저주와도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고대사회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제도 하의 노예들은 일을 저주와 같이 여길 수 밖에 없었다.¹⁾ 지금도 대부

1) Leslie Parrott & Les Parrott, *The Career Counselor: Guidance for Planning Careers and Managing Career Crises*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5), 9.

분의 사람들은 일보다는 휴일이나 휴가를 기다리고, 일은 조금 하고 여가가 많이 주어지는 직장을 선호한다.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이 괴로운 것이라면 결국 삶 자체가 괴로운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특성을 규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이 괴로움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 생각에 고착해 버린다면 삶이 힘들게 된다. 만약 '일이 괴롭다'라는 경험이나 어려움이 없었다면 문제가 되는 많은 것들이 해결되었을 것이다. 일은 노동이 아닌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이 괴로운 것으로 인식된 이유는 이전에는 노동이 육체에 속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대사회에서는 노동이 육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괴롭다고 보았다.²⁾ 이들은 육체를 정신에 비해서 열등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것은 육체로부터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가 노동이라고 본 것이다. 고대에는 노동을 육체노동에 한정했고 소위 정신노동은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직업귀천의 구별은 대개 이 표준에 의한 것이었다. 육체의 움직임이 많을수록 천하고, 정신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된 것일수록 고귀하다고 본 것이다.

성경에서도 노동이 괴로운 것이라는 관점이 있고, 더 나아가 일이 괴롭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괴로운 이유는 인간의 범죄에 기인한다고 본다.³⁾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한 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일이었다. 타락은 일을 고역으로 만들어버렸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경작은 노고와 땀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창 3:17-19). 인간은 죄로 인해 부패한 형편에 처하게 되었고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존하기 위하여, 혹은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게 되었다.

일의 현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변질되고 전투적인 용어들이 일의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일은 괴로움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일종의 사고파는 상품

2) 손봉호, 『기독교적 관점에서』(서울: 나비, 1989), 63.

3) John R. W.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Zondervan, 2006), 186-187.

과도 같이 여겨지고 있다. 이전의 노예 매매장은 일꾼들의 능력을 사고파는 면접장으로 대체 되었다.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그 사람의 됴됨이나 존엄성은 관계가 없다. 투자되는 시간과 기술, 급여 등을 결정하는 시장이 일의 가치만이 아니라,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정의 내리게 된다. 현대 문화에서 인간의 이미지와 가치의 많은 부분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의해서 정의된다.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정의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입장은 일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일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결과이다. 하나님 자신이 창세기 1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날마다 매 단계마다 그분의 창조적 계획이 펼쳐졌다. 더 나아가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과 그로 말미암은 결과에 대한 만족을 표현하셨다. 그분이 안식하시기 전의 마지막 창조활동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을 역시 일꾼으로 만들었다. 그들에게 지배권을 주고 그것을 정복하는데 그들의 창조적 재능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다.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특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그분을 대신해서 주위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을 위임 받고 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손수 일하면서 전도했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명령하기까지 했다.

일이 괴로워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일이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일이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다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계속 일이 괴로운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죄사함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아직도 죄의 영역 속에 살기 때문이다.

둘째, 일을 축복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무의미와 “해 아래의 고된 노역”에 대해 전도서 기자는 비관적으로 표현했다(전 1:2-3; 2:11, 22-23). 하지만 그는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이 마음의 기쁨이며, 이는 태양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뉘’이라고 한다(전 2:10). 기

쁨은 수고한 결과로 생겨나는 것으로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고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 기쁨은 인간의 노고에서부터 직접 기인한 마음의 즐거움이고, 애써 수고한 인간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도서 기자는 일과 이로 인한 기쁨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임을 말하며 그것을 누리기를 권고한다(전 2:24; 3:13, 22).⁵⁾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몫으로 주시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다(전 2:26)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 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분복이로다”라고 선언한다(전 5:18).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들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삶이 질서 속에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신다.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매일의 삶에 선물을 주셨다. 그것은 일하는 수고를 통해 얻은 열매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누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가면서 보람을 누리는 것이다. 이 축복은 수입이 적은 노동자에게나(전 5:12) 부자에게나(5:19) 동일하게 주어지며, 게으름이나(4:5) 다른 이들을 시기하여 하는 일(4:4), 혹은 자아 중심적인 탐욕을 위한 일은(4:6)은 잘못된 것으로 본다.

일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새로운 활기를 통해 그 의미를 더해준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에게 부과된 고된 일의 스트레스 속에서 신음하는 일이 없거나, 늘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다.⁶⁾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우리에게 부과되는 짐들을 피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과거 보다 지금

4) 박영식, 『코헬렛의 지혜와 즐거운 인생』 (서울: 성서와 함께, 1997), 117.

5) Roland E. Murphy, *World Biblical Commentary: Ecclesiastes* (Dallas: Word Books, 1992), lx.

6) Michael Novak, *Business as a Calling*, 김진현 역, 『소명으로서의 기업』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7), 51-52.

일하는 현장은 분업화되어있고, 대개의 경우 한 가지 종류의 일의 반복을 뜻한다. 전문화, 분업화되고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하는 지루함을 경험한다. 가치를 찾기 힘들고 도전도 없고 자기실현의 자극과 발전의 기회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따르는 지금의 위치에서 자신의 수고를 다할 때 경험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즐겁게 일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죄 밑에 아직도 신음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속죄의 은혜 가운데서 즐기는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고, 특히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일에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반면에 괴로우니 괴로운 대로 참고 일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것 같이, 일 자체는 괴롭더라도 그 일의 결과만 즐기는 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일은 성취를 위한 중독적 성향을 가져오게 한다. 일이 축복이라면 더 많은 일은 더 좋은 것이고 계속 일에 매진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길 수가 있다. 이러한 강박적인 일중독의 초점은 성취와 결과이다. 일에 중독된 사람은 개인적 성취가 사실상 주된 목적이 된다. 일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다.

2) 일과 소명

소명(vocation)은 사전 상 “사람이 자신에게 지정된 것으로 믿는 직능 또는 직업적 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⁸⁾ 또한 영어나 독일어(beruf) 그리고 한국어로도 소명(召命)은 ‘신이 정해 준 과업이라는 종교적 개념’이 시사되고 있다.⁹⁾ 소명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라는 초대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창조될 때 의도된 그 사람이 되라는, 그리고 우리가 하도록 의도된 그 일을 하라는 부르심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소명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7) Ernst. F. Schumacher, *Good Work* (New York: HarperCollins, 1980), 27.

8)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s.v. “vocation.”

9)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Miami, FL.: BNPublishing, 2008), 79.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¹⁰⁾

첫째, 일(occupation)과 소명(vocation)과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 둘을 동의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로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 . . 형제들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17, 24).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 이야기 하려 한 가정의 원리(고전 7:16)와 함께, 많은 주석가들이 주어진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Martin Luther나 John Calvin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소명의 개념을 어느 한 부분에 제한시키기를 거부했다. 인간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가르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으로 생각했다. 보편적 소명(universal calling)의 개념이 이제 특수 소명(special calling)의 개념과 연결 된 것이다.¹¹⁾

직업의 성, 속이 없어지고 귀, 천의 구분이 없어졌다. 직업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소명과 우리의 직업을 구분하던 성숙이원론을 거부하고 일에 하나님의 소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성취하는 과정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었다.

소명으로 일을 보는 관점에는 네 가지 일반적인 요소가 있다.¹²⁾ (1) 한 사람의 일이 주변 사람들의 유익에 기여한다. 일이 하나님 또는 이웃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2)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일이 없다는 것은 곧 소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소명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 (3) 소명은 어떤 소수만이 가진 특권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이다. 직업과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

10) Kevin Brennfleck & Kay Marie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A Practical Guide to Finding and Fulfilling Your Mission in Life*, 강선규 역,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한 소명찾기』 (서울: IVP, 2006), 14.

11) Robert D. Knudsen, *Sociology: The Encounter of Christianity with Secular Science*, 서영일 역, 『기독교 사회학』 (서울: 은성, 1989), 89.

12) Parrott, *The Career Counselor*, 10.

는 것에 동참하게 된다. (4) 소명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고 목적이 있다. 각 개인은 “내가 부름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서는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야만 한다.

둘째, 소명과 일을 동일하게 보기 보다는 인간의 일차적 소명은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직장을 잃는다고 해서 소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업자가 되거나,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을 때에도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통해 무엇을 생산하고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신다.¹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일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소명은 직업을 능가하는 영원한 것이다. 기독교는 소명을 삶 전체를 포괄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관점을 차용해서 그 의미를 변질시켜 버린 것이다. Kevin Brennfleck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일을 목적이나 소명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오늘날 일은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빠른 속도로 종교를 대체하고 있다. 일은 우리가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것은 이제 전통적인 종교적 질문들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일은 이에 더 이상 단순히 경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다.”¹⁴⁾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소망하는 직업을 갖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혹은 정당한 생계수단을 발견하는 일과 동일화되었다. 소명이 본래 의미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역할에 의해서 그 내용이 설정되었다. 결국 세상 사람들도 일을 소명이라고 동일화 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신앙과 소명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다.¹⁵⁾ 소명을 바라

13)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25.

14)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23.

15) Os Guinness, *The Call: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Nashville, TN.: W Publishing Group, 1998), 40-41.

보는 이러한 세상적 관점 때문에 사람들은 일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일은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독특한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며 일의 영역에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일만이 우리의 중심적인 소명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가사활동이나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소명 중의 하나다. 소명을 직업과 신분과 보수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롬 1:6; 고전 1:9; 딤후 6:12; 유 1:1).¹⁶⁾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할 일에 대한 소명이 있다. 보수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주어지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준비를 시키셔서 어떤 일을 행하게도 하시고, 먼저 특정한 일로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진 직업적 소명을 발견하고, 수 많은 직업과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3) 일의 목적

사람들이 어떤 필요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에 참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진로상담에 있어서 중요하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 필요에 대한 충족에서부터 자기실현을 이루고자 하는데 까지 다양하다.¹⁷⁾ 첫째, 일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서 일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 인간의 배고픔, 갈증, 햇볕, 감금, 압박 그리고 신체적 고통과 같은 욕구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을

16) Guinness, *The Call*, 31.

17) Abraham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2d ed. (New York: Harper, 1970), 35-58.

보여준다(마 11:2-5; 14:13-21, 25:31-46; 막 1:32-34; 눅 4:6-21). 근래에 실업문제가 사회적 문제와 현실로 등장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들이 직업을 준비하고 지원하고 일터를 발견해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일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다른 목적은 안전한 삶과 보장된 미래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평생 전념할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찾거나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발견하면 삶은 안정될 것이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나' 하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생각의 저변에 안정에 대한 갈망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누구나 졸업, 일시적 실업, 파면, 사업 실패 같은 실제적인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또한 죽음, 이혼, 거주지 이전 등과 같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 역시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는 긴장과 위기를 가져오게 하고, 갈등 속에서 안전한 울타리에서 보호 받고자 하는 필요를 강하게 갖게 한다. 또한 이 시대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졌고, 살아가면서 직업을 적게는 두, 세 가지, 많게는 네, 다섯 가지 정도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안주하지 못하고 다른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은근히 강요되어지는 변화에의 도전은 사람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한 일터에서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관록과 경험이 우대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첨단 기술에 대한 숙지를 요구받는다. 연륜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재교육을 받고 위치를 조정해야만 한다. 이러한 불안정한 직업 현장의 사람들을 돕는 것이 상담자의 과제로 주어진다.

우리와 시대가 비록 달랐지만 성경의 사람들 역시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된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재능으로 인해 사울 왕을 치료하기 위해 발탁된 음악가이자, 양을 치는 목자였다. 예수님은 목수이셨지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세주, 선생님, 치료자 이셨다. 바울의 사도직은 변함이 없었지만, 자비량 선교사로 여러 일들을 하고 여러 장소에 갔던 것

을 보여준다.

이제 일은 적응해 가는 일종의 삶의 여정과도 같이 되었다. 단순한 일에서 관찮은 일로 더 나아가 기쁨을 가지고 감당할 일로 나아가도록 도와야 한다.¹⁸⁾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정을 계속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일에 있어서 개인적 필요의 또 다른 측면은 수용 또는 존중이다. 일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함께 하는 동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사람은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깊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만족 그 이상으로 직장 공동체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똑 같이 생각하고 똑 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심지어 옷도 똑같이 입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지위와 권력을 찾는다.¹⁹⁾ 그 공동체에서 소외나 거절을 당하는 것은 깊은 낙심을 가져오게 하고 진로에 대한 변경까지도 생각하게 한다.

넷째, 일의 또 다른 기능이자 목적은 일을 통해서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다.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능숙해 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제 수행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경험한다. 무언가를 성취해 가며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Edgar Schein은 <표 1>에서 일을 선택하고 성취해 가는 과정을 심리적 발달과제와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다.²⁰⁾

18)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47.

19) Robert Banks, *Redeeming the Routines: Bringing Theology to Life*, 한화룡 역, 『일상 생활속의 그리스도인』 (서울: IVP, 2001), 109.

20) Edgar Schein, *Career Dynamics: Matching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Needs* (Reading, MA.: Addison-Wellesley, 1978), 36-48; Parrott, *The Career Counselor*, 17-18에서 재인용.

〈표 1〉 각 단계에서의 능력 성취의 일급 가지 내용

역할	심리적 위기	직업에서 요구되는 수행능력 과제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선택을 위한 개인적 책임을 수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 관심, 능력을 발전시키고 발견하기 - 현명한 교육적 결정을 하기 - 직업상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지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인내 - 자신 있게 자신을 소개하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을 찾고, 지원하고 인터뷰를 하는 방법 하는 능력 배우기 - 조직 또는 고용현장에 대한 정보를 평가하는 능력 방법을 배우기 - 현실적이고 타당한 직업을 선택하기
실습생/ 훈련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능력 - 현실을 다루는 능력 - 조직체가 정말로 바라는 것 - 불안전함을 극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체의 비결을 배우기 - 타인을 돕기 - 지시를 따르기 - 채용을 받기
동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성 -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 균형 있는 삶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인 기여자가 되기 -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 특정분야를 발견하기 - 조직 내에서의 새로운 자기지시고가 성당 잠재력의 관점에서 본래의 진로와 목적을 재평가하기
멘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에 대한 책임을 맡기 - 타인의 성공에서부터 만족을 얻기 - 확고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기 - 지속적인 측면적 성장의 기회를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을 훈련시키고 멘토링하기 - 조직 내의 다른 부서와 함께 하기 - 팀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후원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복지에 대한 좀더 관심을 갖기 위해 자기에 대한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기 -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관리하기 - 일과 가정의 균형잡기 - 은퇴를 계획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기 - 조직의 방향을 형성하기 - 조직의 기밀을 취급하기 - 조직의 정책을 다루기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 타인의 창조적 계획을 후원하기 - 능력과 책임을 관리하기
은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과거 직업성취에서 만족을 발견하기 - 개인적 성장의 새로운 국면에 개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과 생활양식의 기준에 있어서 변화를 적응하기 - 자신의 능력과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발견하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 1:28)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개의 연속된 명령은 논리적으로 다음 것을 유도한다.²¹⁾ 땅을 가득 채우지 않고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 먼저 자신들을 재생산하지 않고는 땅을 채울 수 없다. 최초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 더 나아가 우리가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것이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또한 그 분은 우리가 성취해 가는 삶을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다섯째, 사람들은 자기실현의 중요한 부분을 일 가운데서 찾는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일을 통해서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본인이 그리고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는 것이다. 자기실현의 특별한 형태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실, 창조성, 지혜, 능력, 관대, 그리고 타인에 대한 희생적인 헌신을 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21)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187-188.

그러나 일은 인간의 자기실현만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연해야 한다. 아담이 에덴동산을 경작한 것은 그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였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수확물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명령한다. 바울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라고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받아 사는 성도가 자기중심적 욕구를 죽이고,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²²⁾ 우리 자신의 타고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을 위한 헌신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동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²³⁾

더 나아가 일의 가장 존귀한 기능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이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기술, 능력, 관계, 돈과 물질적인 자원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하신다(마 25:14-30).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에 대해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책임 있게 사용하라고 부르신다.

2. 진로선택과 하나님의 인도

진로상담의 중요한 실제적 주제 중의 하나는 진로선택의 문제이다. 진로선택은 다양한 정보수집, 정보의 평가, 감정적인 의사결정, 최종적인 의사결정과 선택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과정이다. 또한 지각, 인지, 사고, 태도, 가치관, 욕구, 흥미, 선택, 실천 등, 인간의 인지-정서-행동 등이 개입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직업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키고,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수행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능력, 동기, 욕구, 신체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²⁴⁾

22) Klyne Snodgras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Ephesians* (Grand Rapids, MI.: Zondervan, 1996), 250.

23) Schumacher, *Good Work* 4.

24) 김계현,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6), 221.

또한 이러한 진로선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의 영역을 포함해서 우리의 삶은 결정의 연속이다.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불가능해도 분별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분별 있는 사고, 사람들의 조언, 깊은 사색, 기도를 한다.²⁵⁾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해야 하고, 우리 각자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1) 진로선택의 요소

즐겁게 일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가능한 한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즉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소질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한 진로 결정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합당한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진로를 탐색하는 사람들의 적성과 성격에 중점을 두는 직업선택의 이론과 함께, 진로발달 이론은 직업선택의 결정요소로서 개인적 그리고 성격적 발달의 과정을 강조한다. Donald E. Super는 개인의 진로발달은 자기개념을 발달시키고 이를 현실과 맞추어 나가는 생애단계(life stages)에 걸친 연속된 과정으로 보았다. 개인은 성장-탐색-확립-유지-쇠퇴라는 다섯 가지 생애단계를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 진로발달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역할 연기(role playing)이다. 사람은 생애단계의 변화에 따라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역할 연기(아이, 학생, 여가 활동자, 시민, 직장인, 주부)를 해 나가는 존재로 여겨진다.²⁶⁾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직업선택에 대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은 특성-요인이론이다. 이것은 각 사람의 관심과 능력, 그리고 적성과 성향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초기 연구의 강조점은 각 개인에 대한 분석, 직업 분석, 그리고 직업선택을 위한 과학적, 합리적 조언이라는 세 가지

25) James I. Packer & Crolyn Nystrom, *Guard Us, Guide Us*, 조계광 역, 『하나님의 인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257.

26) Donald E. Super, "Career and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1980): 282-298.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특성-요인이론의 강조점은 첫째, 개인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둘째, 직업세계는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셋째, 직업의 선택은 특성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넷째,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간에 연결이 잘 될수록 성공 또는 만족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후 1950년대에 등장한 진로심리학자인 John Holland의 직업선택 이론이 현대 직업상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직업선택에 대한 Holland의 이론은 개인의 독특한 성격 적성에 맞는 직업적 성격 유형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성격과 일의 환경 사이의 일치를 가져오게 하는 직업선택이 직업현장에서의 안정, 성취 그리고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고 가정된다.

그의 이론은 네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은 여섯 가지 성격 이론 중에 하나로 범주화할 수 있다: 현실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진취형(Enterprising), 사무형(Conventional), 둘째, 일의 환경 역시 여섯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 능력 그리고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한다. 넷째,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성격과 작업 환경의 성격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²⁷⁾

반면에 Clarke G. Carney와 Cinda F. Wells는 개인의 '자기 자신'과 '직업 내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결정 전략스타일을 구분하였다.²⁸⁾

가장 효과적인 결정 전략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 계획된 결정이다. 비록 보폭은 늦을지 몰라도 중요한 결정요인들이 충실하게 통찰되고 반추되어진다. 정보 수집, 선택이후에 그려질 그림 예상하기, 가능한 선택들에 대한 검증과 함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엄격한 평가, 경쟁세계의 냉엄한 현실에 대한 평가 등이 고려된다. 또한 개인적 직관, 전문가의 조언, 사랑하는

27) Parrott, *The Career Counselor*, 21-22.

28) Clarke G. Carney & Cinda F. Wells, *Working Well, Living Well: Discover the Career Within You*, 5th. ed. (Belmont, CA.: Brooks/Cole, 1998), 20-21.

이들의 의견 역시 개입된다.

반면에 그 반대에 위치하는 혼동 또는 마비는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결정 자체가 어려운 경우이다. 의존적 결정전략은 환경에 대한 이해는 있으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제공되는 정보를 지나치게 의존하고 그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 진로선택에 직면해서 대개의 경우 처음에는 지체하거나 미루고, 이후에는 믿을 만한 권위자 같은 이들이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의존한다. 의존적 결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책임 회피로 기능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직관적 결정전략은 환경 지식은 낮지만 자기 지식은 높은 경우이다. 정황이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이 본인에게 찾아오는 직감적 반응에 기초해서 결정을 한다.²⁹⁾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직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뭔가 달라’, ‘뭘라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이건 아니야’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직관이다. 우리 삶에서 명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감을 잡는 일들이 있고,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이 된다.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설명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렇다’ 라고 말하게 된다. 직관은 한, 두 번은 맞아떨어지는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 정확성에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생각 보다는 감 또는 감정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거나 계획을 하지 못한다.

2)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지식, 또는 자신에 대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³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을 대하시는 그 분의 방법을

29) Malcom Gladwell, *Blink: The Power of Thinking Without Thinking*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2005), 44.

30) Sinclair B. Ferguson, *Discovering God's Will*, 정병길 역,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서울: 성서유니온, 1981), 32.

알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한 실제적 지식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Brennfleck는 이 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첫 번째 나침반 원리로 제시한다.³¹⁾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준비시키고 능력을 부여하신다(엡 4:22-24; 고후 3:18; 골 3:10).

그가 제시하는 나침반 원리 2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데 은사를 사용하라' 이고 나침반 원리 3은 '은사에 대해 적극적인 청지기가 되라' 이다. 나침반 원리와 함께 직업여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도를 소명지도라고 하며, 하나님의 여섯 가지 설계를 지도로 그려야한다고 말한다: 설계 1. 전환가능한 기술, 설계 2. 핵심 가치, 설계 3. 선호 역할, 설계 4. 성격 유형, 설계 5. 억누를 수 없는 관심사, 설계 6. 영적 은사.

Garry Friesen과 Robin Maxson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기 위한 네 가지 근본적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1) 하나님의 드러난 계획과 원리(성경)는 순종해야 한다. (2) 성경이 명령하거나 원리를 제시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신자는 성경의 방침과 조화를 이루는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윤리적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하나님께 수용되어진다. (3) 도덕적 성격과 관련 없는 결정에서, 기독교인의 목적은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4) 모든 결정에서 신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적 뜻에 복종하고, 그것이 각 각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해야 한다.³²⁾

반면에 진로결정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첫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모세: 출 3장, 바울: 행9, 22, 26장, 기드온: 사 6장, 아모스: 암 7:14, 15; 렘 1:4-8; 겔 2, 3장). 그러나 이 사건들은 보편적 원리라기보다는 새로운 국면의 삶과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31) Brennfleck, *Live Your Calling*, 35.

32) Garry Friesen & J. Robin Maxson,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A Biblical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View* (Portland, OR.: Multnomah, 2004), 226

들이 전혀 꿈꿔 보지 못했던 일을 행하라고 불리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대면하신 것이다.³³⁾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과 개입을 하셔서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수 있다. 그러나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인도하심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특별한 감정이나 환상, 음성, 또는 강렬한 마음의 확신을 주는 느낌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일조를 하는 면이 있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도 한 인간의 직관적 예감, 소원이 되는 생각 또는 개인적 편견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둘 필요가 있는 대안은 성경에 근거한 이성적 추론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의도를 반추하는 노력을 요구하시고,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엡 5:17)고 말한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문맥과 직역 상으로 보면 ‘실제적인 이해(지각)가 없는 자(senseless)’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시편 119편 66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탐구와 그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심정과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의 상황과 경험에 바르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결합되었을 때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은 점점 성숙하게 된다.³⁴⁾

둘째,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주어진 환경이 진로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이 열리는 또는 닫히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체적 증거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즉시

33) James I. Packer & Crolyn Nystrom, *Guard Us, Guide Us*, 251.

34) Ferguson, *Discovering God's Will*, 40.

그리고 직관적으로 알려고 하는 조급함과 모호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동기가 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열린 문이라는 용어를 개인적인 결정을 앞두고 인도를 구하는 것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성경에서 사용된 열린 문은 복음을 선포한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행 14:27; 고전 16:8-9; 고후 2:12-13).

사도행전 16:6-10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바울과 그 일행이 계획하는 여정을 두 번이나 막으셨다. 보기에는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전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시아를 공략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다. 조금 지나서 이들은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의 땅으로 건너오라고 청하는 환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그들은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다. 바울의 결정은 환상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고, 환상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에 기초한 것이다.³⁵⁾ 자신들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모든 뜻에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적 메시지는 아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회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포함한다.

Parrott은 진로결정의 8단계를 제시하며, 각각의 단계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에 근거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말하고 있다.³⁶⁾ 이 8단계는 순환 단계로 진로결정이 더욱 성숙해져 가는데 필요로 하는 과정임을 제시한다: 시작 → 인식 → 자기평가 → 탐색 → 통합 → 헌신 → 수행 → 재평가 → 새로 워진 인식 → 재시작.

처음 인식단계의 특징은 의심과 두려움 같은 혼동의 감정과 함께 경솔하고 미성숙한 행동으로 특징 지워진다. 중요한 과제는 진로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평가는 주로 자신의 신념, 태도,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자신이 하는 결정이 얼마나 심

35) Friesen & Maxson, *Decision Making and the Will of God*, 221.

36) Parrott, *The Career Counselor*, 35-41.

각한 것인지?”,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성취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나 희생을 기꺼이 하려는지?”를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결정을 통해 가장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선택과 포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탐색의 목적은 행동 가능한 내용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다. 양질의 대안적 전략을 산출하기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과제가 된다. 통합 단계의 목적은 현실의 선택과 지금까지의 희망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다시 한번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재평가해야 하는 시간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 재정적 자원 그리고 시간적 제약과도 같은 다른 요소들 역시 평가된다. 헌신은 어떤 보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위험 가운데 결단하는 것이다.

수행의 목적은 결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걸림돌이 있어서 지체가 되거나 막히기도 한다. 재평가는 다양한 정보와 경험이 관점이나 가능성에 있어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진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하는 것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자기도 모르게 형성된 타성과 가치와 습관을 살펴본다. 새롭게 정립된 인식으로 진로결정의 또 다른 차원의 순환과정이 이어지고 결국 성장과 배움의 열매를 맺어간다.

III. 닫는 글

진로상담에 있어서 기독교 상담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영역을 일의 의미, 일과 소명과의 관계, 그리고 일의 목적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았다. 또한 진로결정이라는 실제적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진로결정 과정의 여러 요소들을 개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한 원리를 제시했다.

【 Abstract 】

The Meaning of Work and Career Decision Making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meaning of 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 and calling, and the purpose of work that are consistent with Christian understanding. Everyone has his or her own view on the world of work. Understanding this view within each counselee and biblical point of view of work are the cornerstone of career counseling. Our primary calling is to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urthermore, God calls each of us not only to a self-actualization, but also to a life of stewardship. The Bible teaches that everything we have are gifts God has entrusted to us to manage and use wisely for the good of his kingdom. This paper briefly summarized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vocational decision making and practical skills for the career counseling process. Theories of occupational choice emphasis on assessing the interests, abilities, and character of the worker. Trait and factor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theory have been introduced. It is one thing to acknowledge the theory and skill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another to discern what God wants us to do with our life and gift. Making our career decision is a partnership effort between human being and God. God is ready and willing to do his part to guide you into the work.

Key words: career counseling, the meaning of work, vocation, decision strategy, career decision making

【 Abstract 】

The Meaning of Work and Career Decision Making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meaning of work,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 and calling, and the purpose of work that are consistent with Christian understanding. Everyone has his or her own view on the world of work. Understanding this view within each counselee and biblical point of view of work are the cornerstone of career counseling. Our primary calling is to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urthermore, God calls each of us not only to a self-actualization, but also to a life of stewardship. The Bible teaches that everything we have are gifts God has entrusted to us to manage and use wisely for the good of his kingdom. This paper briefly summarized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vocational decision making and practical skills for the career counseling process. Theories of occupational choice emphasis on assessing the interests, abilities, and character of the worker. Trait and factor theory and career development theory have been introduced. It is one thing to acknowledge the theory and skill for career decision making and another to discern what God wants us to do with our life and gift. Making our career decision is a partnership effort between human being and God. God is ready and willing to do his part to guide you into the work.

Key words: career counseling, the meaning of work, vocation, decision strategy, career decision making

